

진리와 사랑과 화합의 출판

金在淳

샘터사 명예이사장 · 국회의장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아교육에 관한 책을 펴내고 있는 어느 출판사 편집부로 한 엄마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엄마의 상담요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어느 책을 보니, 외국어교육은 일찍 시키는 게 효과적이라고 한다. 특히 다섯살 이전에는 여러나라 말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이 나이든 아이들보다 더 높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집 다섯살짜리에게 5개 국어를 동시에 가르칠 수 있는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방법은 아침식사할 때 헤드폰을 끼고 영어회화공부를 하고 오전에는 프랑스어, 점심식사 때는 일본어……. 이런 식으로 가르쳐보고 있는데 과연 이런 공부방식이 잘된 것인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섯살짜리 어린이가 하루종일 외국어 회화 녹음테이프를 들고 있어야만 한다면, 끔찍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섯살짜리가 아니라 50세된 어른이라 한들 도대체 한 사람이 5개 국어를 해야 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더구나 언어란 의미체계인데, 아직 하나 둘 셋도 셀 줄 모르는 다섯살짜리에게 뜻도 모르는 언어를 흉내내게 한들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러한 당연한 반문에 앞서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책이라는 문화매체가 끼칠 수 있는 지대한 영향력에 관해서입니다. 그 엄마는 유아교육서적에 인쇄된 가르침이기에 의심없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현실생활에서 실행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처럼 책이란 특히 다른 문화매체에 비해 신뢰도가 높으며,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교육기능이 보다 강한 것입니다. 다른 문화매체, 가령 映像이나 소리에 의한 문화는 대부분 鑑賞의 기능이 더 많은데 비해 문자는 의미의 전달수단이기 때문에 교육성이 거의 전부입니다.

문자 고유의 목적은 한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타인에게 전하기 위한 것인 만큼 우리는 문자로 표현된 타인의 경험, 지식, 의견 등을 진지하게 수용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인류의 문명과 문화는 문자에 의해서 축적되고 전달되어 한 걸음 한 걸음 진보해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자에 대한 인간들의 신뢰감은 거의 종교적으로 큼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뢰감을 악용하여 거짓 경험, 거짓 진리가 문자로 인쇄되어 널리 유포되고 있습니다. 현대에 가까울수록 상업주의에 편승하여 그 거짓말은 더욱 많이, 더욱 교묘하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찾는 인간들의 발전 본능을 악용하여 거짓된 것을 다만 새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내세워 특히 돈벌이에 이용하는 가증스런 일이 예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본주의 선진국들에 범람하고 있는 음란서적들이 그러하고, 작금 한국출판계에 범람하고 있는 容共서적들이 그러합니다. 진리란 궁극적으로 사랑과 화합과 공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오와 대립과 권력독점의 이데올로기를 가르치는 서적들이 그동안 금기되었었기 때문에 새로워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널리 퍼지고 있는 최근 한국출판계의 현실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새해에는 20세기의 마지막 10년을 여는 해입니다. 향후 10년은 특히 우리 한국인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시대가 됩니다. 진정한 민주화를 이룩해야 하고 5천년의 가난을 명실공히 극복해버릴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런 시대에 진리가 아닌 문자가 끼어들어 혼란을 조성하면 우리 민족이 당할 비극은 처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사회의 모든 혼란은 맨먼저 언어의 혼란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혼란을 예방하는 일차적 책임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 출판인-문자를 상품으로 공급하는 우리 출판인의 판단에 막중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신년에세이	2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시대/李萬甲
특집/출판인 앙케트	4	1990년대를 향한 '출판인의 목소리' -출판인 32인의 90년대 설계와 새해 構想
서평	12	김대행 「우리詩의 틀」-金載弘 김옥동 「리얼리즘과 그 불만」-金聖坤 13 姜晋哲 「韓國中世土地所有研究」-河炫綱 朴敏 「韓國아리랑文學研究」-김시업 14 金榮漢 「르네상스 휴머니즘과 유토피아니즘」-趙志衡 로만 아홉슨 「문학 속의 언어학」-李炫馥 15 문예진흥원 「문화운동」-李重漢 송기숙 「녹두장군」-任軒永
세미나	16	90년대 출판, 어디로 갈 것인가 17 '출판사 등록법' 개정 시급하다
출판화제	18	우리 '史眼'에 의한 최초의 中國通史
특별기획	20	1990년, 파우스트를 위한 吊歌/김남일 21 미래의 출판은 어떻게 되나/이기성 22 대형서점이 통째로 안방에 옮겨진다/梁文吉
저작구상	23	소설읽기의 다양함-「敍事理論」/權澤英
지금 독서중	24	제레미 리프킨의 「엔트로피」-소아과 의사 李容吉씨 도종환의 교육시집 「지금 비록…」-잡지기자 鄭芝曠씨 25 전진우 창작집 「하얀 행렬」-주간신문 기자 全河述씨 미국 수피즘협회 편 「꼬마성자」-회사원 金明修씨
해외문화	26	개혁운동의 선봉에 선 체코작가들 27 1989년도 美國 최우수도서
독자서평	28	김상현/남영주/임종기/오정숙 30 신간안내 38 200자 안내/화제의 책/논총 40 신간목록 46 일간지 출판기사 색인 48 프리즘(이경훈)/독서퀴즈/정기구독 안내
뉴스	16	경기도 고양군에 책 4천권 기증
산문	3	본지 반포가 인상 안내

표지사진/구본창

謹賀新年

한결같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독자, 편집서평위원
그리고 출판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990년 새해

출판저널 임직원 일동